

일반논문

## 일본의 히키코모리 지원체계 고찰과 한국에의 시사점

- 박지선  
우송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외래교수  
(ORCID: <https://orcid.org/0000-0003-2787-8262>)

투고일: 2020.05.10. / 심사완료일: 2020.05.27. / 게재확정일: 2020.05.31.

### 요약

본 연구는 일본의 히키코모리 지원체계를 살펴보고, 한국에의 시사점을 얻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1970년대 고도성장기와 1990년대 경제침체를 경험한 일본은 그 여파로 히키코모리라는 아픈 가시가 사회문제로 자리잡고 있다. '8050문제'와 같은 세계적으로도 특수한 형태의 가족구성과 히키코모리의 고령화, 장기화 문제는 그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그럼에도 일본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히키코모리 실태를 파악하고, 지원정책 개발과 서비스 개선을 통해 대처방안을 모색해 왔다. 최근에는 대상과 방식에 변화를 주고 있다. 그간 '아동·청소년' 내지는 '청년층'을 중심으로 진행해왔던 히키코모리 지원정책 대상을 '중·고령층'으로 확대하고, 분절된 방식에서 '포괄적' 방식의 지원시스템으로 바뀌어 가는 중이다. 또한 상담·복지·의료·교육·고용 등 다 영역에서의 포괄적 지원시스템과 더불어 민관의 다양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러한 일본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 사회에 가져다주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히키코모리, 사회적 고립, 은둔형 외톨이, 8050문제

### I. 들어가는 말

한국 사회는 압축적 산업화를 통해 빠른 속도로 성장·발전해 왔으나 그 대가는 매우 혹독하다. 현재 한국 사회에 잠식되어있는 실업, 고용불안, 소득분배 악화, 저출산 심화, 노인 빈곤 확산, 높은 자살률 등은 위험사회의 단면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 사회

관계의 균열이나 소통의 부재,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이 더해지면서 한국 사회는 지그문트 바우만의 은유처럼 '고체처럼 탄탄했던 국가 시스템이 녹아내려 개인이 선택하고 결정한 모든 것들을 책임져야 하는 액체근대화' 되어 개인의 삶을 고립과 단절로 몰아가는 모습이다(류용재, 2017).

사회적 고립은 자발성 여부를 떠나 개인 차원에서는 삶의 질을 저해하고, 사회 차원에서 사회의 질을 악화시킨다. 즉 사회적 고립은 개인에게는 사회적 욕구 미충족과 함께 위험에 대한 대처에 어려움을 가져와 삶의 질을 저해하게 된다. 또한 사회적으로는 지원체계가 충분하지 못한 상태에서 관계단절을 지속시킴으로써 사회에 대한 신뢰와 협력을 낮추어 사회통합을 어렵게 만들고 궁극적으로 사회적 질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다(한준, 2019).

액체근대에서 발견되는 사회적 고립의 대표적인 집단으로 '히키코모리'에 주목해 볼 수 있겠다. '히키코모리'가 처음으로 알려진 것은 일본에서다. '히키코모리(ひきこもり)'는 '6개월 이상 가족 이외의 사람들과는 교류하지 않으면서 모든 사회적인 관계를 거부하고 자신의 방이나 집 밖으로 나가지 않는 사람'을 의미한다(厚生労働省, 2007). 이러한 히키코모리 인구수는 대략 115만 명(15세~64세) 정도로 추정되며<sup>1)</sup> 고립 기간은 평균 12.2년으로 40세 이상의 경우에는 평균 18년으로 나타나 연령이 높아질수록 고립 기간이 장기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KHJ, 2019).

한국에서는 2001년 처음 연구가 시작되어 일본의 히키코모리와 같은 현상이 국내에도 존재하고 있음을 처음으로 밝혔다(백형태 외, 2011). 연구에서는 은둔형 외톨이 절반 이상이 사춘기가 시작되는 시기에 고립 행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우울 증상과 대인공포를 가지고 있으며 자기 혐오와 공격적 성향, 응석과 같은 퇴행적 행동을 보인다고 하였다(이규미 외, 2001). 이후에도 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히키코모리 연구가 소수 보고되었고(황순길 외 2005; 서정아 외, 2006; 양미진 외, 2007), 공공영역에서도 사회적 고립상태에 있는 이들에 대한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연구들이 발표된 바 있다(송인주, 2017; 김춘

1) 관련하여 히키코모리 연구의 권위자이자 정신과 의사인 사이트 다마키(齊藤環)는 내각부 조사결과가 과소평가일지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본의 히키코모리 인구수는 현 시점에서 2백만 명 정도로 추정되며 히키코모리의 고령화로 이대로라면 2030년에는 히키코모리 1천만 명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https://dot.asahi.com/aera/2019082100081.html?page=1> (검색일: 2020.04.20.)

남, 2018). 또한 2005년 KBS 추적 60분, 2020년 SBS 스페셜 등에서 히키코모리 문제를 다루면서 히키코모리(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히키코모리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는 계기를 마련하려는 노력도 있었다.

이처럼 학문적 관심과 일부 매스컴에서 히키코모리 문제를 다루어 왔으나 아직까지 국내에서의 히키코모리 문제에 대한 심각성과 그에 대한 논의는 활발하지 못하다. 그러나 1인 가구 증가, 청년 취업난, 소통단절, 사회적 고립, 고독사와 같은 문제가 현재 한국 사회에서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와 연관된 히키코모리는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심각한 사회문제라고 할 수 있다. 청소년정책연구원(2017)의 조사결과에서 국내 히키코모리 인구수를 약 32만 명 정도로 추산(중앙일보, 2020.02.07)하고 있지만 국내의 히키코모리와 관련한 공식조사나 정확한 통계자료는 전무한 상태다.

히키코모리가 단지 개인의 문제이고 정신질환이라면 대처와 치료는 그다지 심각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히키코모리는 사회적 인적자원의 손실, 사회적 도태자 양산 등으로 확대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사회적 차원에서의 대처가 마련되어야 하는 사회문제이다(김건, 2013). 만약 이러한 히키코모리 문제를 그대로 방치한다면 사회적 비용과 손실은 더욱 커질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체계적 연구와 사회적 대책 마련이 매우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은 한국과 가장 인접한 국가이면서 사회문화적 배경 등 사회현상 및 실태에 있어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이러한 측면에서 일찌감치 히키코모리 현상을 경험하면서 히키코모리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해 왔던 일본의 움직임과 현재 그들이 안고 있는 과제를 살펴보는 것은 한국의 히키코모리 지원 방향성을 설정하는데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일본은 ‘8050문제<sup>2)</sup>’로 불리는 고령 부모와 중년 히키코모리 자녀의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러한 일본 상황은 히키코모리 문제에 대해 단순히 현재 시점에 국한하여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을 수립하는 데 급급한 것이 아닌 한발 더 나아가 한국 사회에서 보다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전략과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2) 8050은 80대 부모와 50대 미혼의 히키코모리 자녀가 함께 사는 가정을 의미한다. 일본에서는 히키코모리 자녀들이 고령의 부모가 연금으로 받는 수입에 기대어 생활하는 경우가 많다. 70대 부모와 40대 자녀의 경우에는 ‘7040문제’라고도 부른다. 8050문제는 노인학대, 경제적 빈곤 문제를 비롯하여 부모 돌봄, 인간관계 고립, 고독사 등 복합적 문제로 발전한다(시사저널, 2019.06.14).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히키코모리의 개념 정리 및 일본의 공공과 민간에서의 지원체계 현황을 들여다보고, 현재의 지원체계에서 발견된 문제 검토 및 향후 과제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더불어 한국에서는 유사한 개념인 은둔형 외톨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본 논문에서는 내용의 의미를 명확하게 전달하고자 일본식 용어인 히키코모리를 그대로 사용하고자 한다.

## II. 일본의 히키코모리 실태

### 1. 히키코모리 개념

히키코모리는 정신보건의료와 관련된 현상이면서 등교거부나 왕따와 같은 교육현장 및 니트 등 청년 취업문제 간의 다양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사회현상이다(村澤和多里, 2017). 일본에서 처음 사용된 히키코모리는 ‘특정 공간에 틀어박히다’라는 ‘히키코모루’의 명사형이다. 과거에는 주로 어려운 상황을 피하기 위해 산이나 시골에 숨어 사는 정치적 은둔자를 지칭했으나 최근에는 6개월 이상 외출하지 않고, 집안에만 틀어박혀 지내는 사람을 뜻하는 용어로 변화했다(사이토 다마키, 2012).

히키코모리를 정의하는데 가장 많이 참조하고 있는 것은 일본 내에서 히키코모리 문제를 처음으로 제기한 정신과 의사 사이토 다마키(齋藤環)가 내린 정의다. 그는 “히키코모리란 20대 후반까지 문제화하여 6개월 이상, 집에 틀어박혀 사회참가를 하지 않는 상태가 지속되고, 다른 정신장애가 제1 원인이라고 보기 어려운 상태”라고 하였다. 여기서 사회참가란 취학이나 취업하고 있거나 가족 이외의 친밀한 인간관계가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齋藤環, 2002; 井出草平, 2008에서 재인용).

이후 기누가사 다카유키(衣笠隆幸)는 히키코모리를 일차적 히키코모리와 이차적 히키코모리로 구분하면서 사이토 다마키(齋藤環)가 정의한 사회적 히키코모리를 ‘일차적 히키코모리’, 우울, 섭식장애, 조현병 등 정신장애를 원인으로 한 히키코모리 상태를 ‘이차적 히키코모리’라고 하였다. 그의 설명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일차적 히키코모리는 고유의 히키코모리로 다른 신경증적 증상은 발현되지 않고, 히키코모리 그 자체가 주된 증상이다.

그 배경에는 무기력, 공허감 등을 가지고 있다. 이차적 히키코모리는 다른 신경증적 증상으로 인해 히키코모리 상태가 된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였다(衣笠隆幸, 2001).

또한 시미즈 마사유키(清水將之)는 히키코모리의 개념을 ① 집에 틀어박혀 가족 이외의 일반적인 대인관계를 차단하는 것, ② 조현병 등 특별한 정신장애로 인해 퇴각하지 않는 것, ③ 히키코모리가 된 지 6개월 이상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라고 하였다(清水將之, 2003).

이데 소헤이(井出草平)는 진단기준에 초점을 맞추어 ‘개인’에 주목한 정신의학적 정의와는 달리 ‘사회현상’에 주목하고 있는 사회학적 관점에서 히키코모리를 바라보았다. 그는 히키코모리가 다음과 같이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첫째, 1970년대 이후 등교를 거부하기 시작한 청소년이 장기적으로 등교하지 않으면서 나타난 결과이며 이러한 현상이 대규모로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둘째, 세계 어디에서나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 일본, 한국, 영국과 같이 일부 지역에 한정된 현상이며 특히 일본에서는 수십만 명 추산될 정도로 수적 규모가 크다는 것이다. 셋째, 그간 일본의 여러 단체에서 실시한 히키코모리 조사결과 남성이 80% 전후로 나타났다.<sup>3)</sup> 그리고 그는 이러한 특징을 근거로 히키코모리를 ‘사회적 행위의 상실’이라고 표현하였다. 히키코모리라는 현상은 단순히 공간적인 고립이 아닌 ‘사회적’으로 틀어박혀 있는, 즉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다고 본 것이다. 이러한 일본의 히키코모리 현상은 1970년대 중반에 학령기였던 1960년대 초 이후 출생자, 즉 현재 50대가 된 세대부터 나타난 특유 현상이다(井出草平, 2008).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 2010)에서는 ‘10대, 20대를 중심으로 한 히키코모리를 둘러싼 지역정신보건활동 가이드라인’을 통해 히키코모리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여러 요인의 결과로서, 사회참가(의무교육을 포함한 학업, 비상근직을 포함한 취업, 가정외에서의 교류 등)를 회피하고, 원칙적으로는 6개월 이상 가정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상태(타인과의 교류가 없는 상태에서 외출하는 정도)”

내각부(内閣府)에서는 히키코모리를 ‘전혀 외출하지 않거나 가까운 편의점 또는 취미

3) 사이토 다마키(斉藤環, 1998) 연구에서는 남성이 86%, 후생노동성(2003)의 히키코모리 가이드라인에서는 76.4%, 사 이타마현 건강복지부에서 실시한 조사에서는 79.5%, 전국 히키코모리 KHI 부모모임(2005) 조사에서는 83.7%로 보고하고 있다.

목적 등으로 한정된 외출을 하는 상태가 6개월 이상 계속되고 있고, 신체적 질환 때문에 외출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며 가사·육아·개호 등을 일상적으로 담당하고 있지 않고, 가족 외에는 누구와도 소통하지 않으며 집에서 일하지 않는 상태'라고 하였다(内閣府, 2019). 이처럼 히키코모리 개념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오면서 대인관계나 취업에 어려움을 가진 청년 전반을 지칭하는 용어로 자리 잡고 있다.

## 2. 히키코모리, 등교거부, 니트(NEET)의 개념 차이

히키코모리와 혼동하기 쉬운 용어로 '등교거부'와 '니트(NEET: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가 있다. 히키코모리, 등교거부, 니트는 서로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엄밀히 보면 각각 다른 상태를 지칭하는 용어다. 먼저 등교거부(不登校)에 있어서 일본 문부과학성이 정리한 개념을 보면 "심리적, 정서적, 신체적, 사회적 요인으로 등교하지 않는 것, 또는 질환이나 경제적 이유를 제외하고 등교하고 싶지만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 연간 30일 이상 학교를 결석한 사람"을 의미한다. 즉 등교거부는 히키코모리를 포괄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등교는 거부하지만 지역 활동이나 친구와의 교류는 지속하는 아동이나 청소년들은 등교거부 상태로 보지만 히키코모리라고 할 수는 없다. 또 다른 측면에서 등교거부는 학령기 아동 및 청소년에게서만 나타나는 문제다. 따라서 학령기를 넘어선 사람에게서도 나타나는 히키코모리는 등교거부와 다르다(境泉洋, 2012).

니트는 영국에서 출발한 개념으로 '교육이나 취업을 비롯하여 취업훈련을 받지 않는 상태'를 의미한다. 후생노동성은 니트를 '15세~34세의 비노동인구(일하지 않거나 실업자로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 중 학교에 다니지 않고, 가사일도 하지 않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厚生労働省, 2007). 내각부에서는 '학교에 다니지 않고, 소득이 있는 일을 하지 않는 15세~34세의 개인'이라고 정의한다(内閣府, 2010). 등교거부와 마찬가지로 니트는 학교에 다니지 않고 일을 하지 않을 뿐 타인과의 교류는 유지하는 상태라는 점에서 히키코모리와 다르다. 또한 니트는 히키코모리와 연령층의 중복이 있어 혼동하기 쉬운 개념이지만 가족 이외의 타인과의 교류 여부에 따라 개념 차이가 존재한다. 이처럼 히키코모리는 가족 이외의 타자와의 교류가 없다는 점에서 등교거부나 니트와는 구별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 3. 히키코모리의 사회문제화 과정

일본에서 히키코모리가 사회문제로 등장한 시기는 1970년대 무렵으로 등교거부(不登校) 문제에서 출발한다. 교육이나 의료임상 영역에서는 1950년대부터 등교거부(학교공포증) 문제를 보고<sup>4)</sup>하고 있으나 사회현상으로 규모 있게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이다. 1970년대의 일본은 고도경제성장기로 청소년들은 경쟁주의와 학력주의 속에 놓여 있었다<sup>5)</sup>. NPO법인 청년자립원조센터 대표 쿠도 사다츠구(工藤定次)가 1978년 히키코모리로 불릴 만한 사례에 처음 개입한 것을 시초로 보았다(齊藤環, 2003; 井出草平, 2008에서 재인용). 1970년대 중반 등교거부 학생이 서서히 나타나면서 1980년대 이후 등교거부 학생이 급증하는데 이러한 등교거부자 중 일부가 히키코모리로 이어지면서 히키코모리라는 현상이 나타났고, 이들을 ‘히키코모리 제1세대’라고 부른다(井出草平, 2008).

1966년~1970년대 중반에 걸쳐 등교거부 학생 수가 완만하지만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면서 학교공포증과 등교거부에 대한 논의가 잠시 주춤하게 된다. 그러나 1975년을 기점으로 등교거부 학생수가 눈에 띄게 증가하면서 등교거부에 대한 논의가 다시 활발해지기 시작했다. 1970년대~1980년대에는 과보호나 모자밀착적인 양육을 등교거부 원인으로 보는 견해가 많았다. 타마이 슈스케(玉井収介)는 등교거부 학생의 증가이유를 핵가족화와 과보호에서 찾았고, 큐토쿠 시게모리(久徳重盛)는 자녀의 심신장애는 대부분 어머니의 양육 태도에 의해 나타난다고 하였다. 이에 ‘모원병(母原病)’이라는 개념이 유행하기도 했다(村澤和多里, 2017에서 재인용). 또한 등교를 거부하는 청소년을 게으름이나 질환으로 보고, 억지로 학교에 데리고 가거나 교정이나 치료의 대상으로 여겼다(奥地圭子, 2005). 또 다른 측면에서는 등교거부는 어느 청소년에게서나 일어날 수 있다는 인식의 전환과 함께 등교

4) 일본에서 등교거부가 주목받게 된 것은 1950년대 후반 무렵으로 알려져 있다. 전쟁 전에는 취학하여 교육받는 것에 대한 인식이 전반적으로 낮았으나 전후에는 지방의 농어촌에 이르기까지 취학 행동이 당연시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한편으로 등교하지 않는 행위, 이른바 등교거부가 새로운 일탈로 등장했다. 다카키 류노 외(高木隆郞 외, 1959)와 사토 슈사쿠(佐藤修策, 1959)에 의해 등교거부에 대한 최초의 보고가 있었다. 사이토 다마키(齊藤環)는 등교거부행동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지만 그 후 스미 타에코 외(驚見たえ子 외, 1960)가 Johnson 외의 연구를 참고로 정신의학적 측면에서 ‘학교공포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등교거부 문제가 학교공포증을 중심으로 연구되었다. 또한 모자분리불안과 같은 부모자녀관계 문제를 비롯하여 가정 내 폭력 및 가정 내 문제를 발생원인으로 보고, 이러한 아이들에 대해 불안신경증을 가진 특별한 아이들의 문제로 인식하였다. 이에 주로 정신의학 분야의 대상으로 다루어졌다(村澤和多里, 2017).

5) 이 시기에 학령기를 보낸 사람들을 일컬어 ‘포스트 단카이 세대’라고 한다.

거부의 탈문제화가 진행된다. 학교에 문제가 있고, 학교에 가지 않고 살아가는 방식도 있다는 인식에서 ‘free school’ 등 학교 이외의 장이 마련되어 등교거부자의 많은 수가 밖으로 나오게 되면서 등교거부문제가 해결되는 듯 보였다(高山龍太郎, 2008; 村澤和多里, 2017에서 재인용).

그러나 여전히 남겨진 등교거부 문제의 일부로서 등교거부의 연속선 상에 있는 히키코모리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2000년 전후로 발생한 다수의 사건이 보도되면서 히키코모리가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게 되었다. ‘교토 히노초등학교 남아살인사건(1999)’, ‘니가타현 가시와자키시 여성감금사건(2000)’, ‘사가현 니시테츠고속버스 탈취사건(2000)’에서는 용의자가 히키코모리 상태였던 것으로 보도되면서 히키코모리가 범죄위험이 있는 존재로서 ‘청년의 심리적 위기’, ‘청년문제’ 등으로 자리매김하며 사회문제화되었다(工藤宏司, 2008). 최근에 발생한 ‘가와사키 20명 살인사건(2019)’, ‘전(前) 농림수산성 사무차관의 장남살해사건(2019)’은 히키코모리의 고령화, 장기화에 대한 문제를 일본 사회에 던져준 계기가 되었다.

이처럼 히키코모리는 등교거부 문제를 중심으로 1970년대 후반에 사회문제가 되기 시작해 2000년대까지 주목받았다. 그러나 2020년대에 들어선 현재 히키코모리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채 이들은 40대-50대의 중년이 되었다. 앞서 언급했듯이 히키코모리 인구는 115만 명으로 특히 40~64세 히키코모리 인구가 61만 3천 명으로 추산된다. 이와 같은 히키코모리의 고령화, 장기화 문제, 이른바 ‘8050문제’는 일본의 사회문제로서 사회적으로 서둘러 해결해야 할 중대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 III. 일본의 히키코모리 지원체계 :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그리고 실사례

#### 1. 공적지원의 변천과정과 동향

다음에서는 일본의 히키코모리 지원에 대한 공적영역에서의 전개과정과 동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전개과정의 구조와 내용은 무라사와 와타리(村澤和多里, 2017)의 연구와 사토 류야(佐藤隆也, 2018)의 연구를 참고로 구성하였다.



### 1) 히키코모리·부등교 아동복지대책 모델 사업(1991)

일본에서 히키코모리에 대한 공공에서의 지원을 보면, 초기에는 아동·청소년지원정책에서 출발한다. 행정영역에서 처음으로 히키코모리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1991년 당시 후생성이 제시한 ‘히키코모리·부등교 아동복지대책 모델 사업(ひきこもり・不登校児童福祉対策モデル事業)’에서다. 이 사업에서는 18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히키코모리에 대해 교육적 접근방식이 아닌 복지적 접근방식을 통해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사업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방문원조사업’으로 등교거부 아동가정에 형·누나와 같은 자원봉사자를 파견하여 마음속 이야기를 나눈다. 둘째, ‘등교거부아동 숙박 등 지도원조사업’으로 여름방학 기간에 심리요법이나 생활지도, 야외활동을 지원한다. 셋째, ‘가족요법사업’으로 등교거부아동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집단상담을 진행한다. 넷째, ‘등교거부아동 시설지도사업’으로 가정환경에 문제가 있는 아동에 대해 아동상담소에서 심리치료를 진행한다(井出草平, 2006). 또한 이 무렵 지자체 차원에서 히키코모리 지원이 이뤄지기도 했는데 1993년에는 홋카이도 정신보건복지센터에서 히키코모리 집단지원이 개시되었고, 사카현 정신보건복지센터에서는 부모 모임을 시범적으로 운영했다(보건부잡지, 2000년 3월호; 阪田憲二郎, 2016에서 재인용).

### 2) 10대·20대 히키코모리에 관한 지역정신보건활동 가이드라인(2003)

이후 후생노동성(2003)은 전국의 정신보건복지센터 및 보건소의 히키코모리 대응 지침으로 ‘10대·20대 히키코모리에 관한 지역정신보건활동 가이드라인(10代・20代を中心としたひきこもりをめぐる地域精神保健活動のガイドライン)’을 제작하여 지원체제를 정비하였다. 이를 통해 히키코모리에 대한 공적 지원 통로로 정신보건복지센터 및 보건소가 히키코모리 및 가족의 상담창구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이 무렵 닛트의 출현은 이들에 대한 정책의 접근방식을 ‘취업지원’ 방향으로 설계했다. 무직 상태로 구직활동도 하지 않고, 학업 생활도 하지 않는 닛트의 개념에 히키코모리를 포함하여 히키코모리에 대한 지원은 닛트 지원정책에 녹아들었다.

### 3) 청년자립도전플랜(2003), 청년자립학원(2005)

2003년 내각부, 경제산업성, 후생노동성, 문부과학성 합동으로 ‘청년자립도전플랜(若者自立挑戦プラン)’을 책정하여 무직 상태에 있는 젊은 층의 취업 지원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또한 청년자립도전플랜을 기반으로 2005년 ‘청년자립학원(若者自立塾)’을 설립, 전국 30단체가 운영되었다. 이곳에서는 1년 이상, 일이나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학교나 직업훈련에도 가지 않는 35세 미만 미혼자를 대상으로 합숙 생활을 하면서 취업 동기를 부여하고, 자신감을 높이는 프로그램이 제공되었다. 그러나 계획보다 저조한 참여자 수와 자기부담금 문제 등으로 참가에 부담을 느끼는 사례들이 늘어나면서 2009년 폐지되었다.

### 4) 지역 청년 서포트 스테이션(2006)

2006년 개설된 지역 청년 서포트 스테이션(地域若者サポートステーション)은 닛트 청년지원 전달체제로 역할했다. 여기에서는 커리어 컨설턴트, 임상심리사 등 전문가에 의한 일대일 상담을 비롯하여 의사소통기술 향상을 위한 집단상담, 면접훈련 등 단계별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또한 직장견학, 직장체험 등을 통해 일의 의미를 배우고, 인식하는 기회를 제공했다. 이 외에도 자녀의 자립을 지원하는 방법, 자녀에게 접근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개별상담서비스를 통해 보호자의 고민과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하였다.

### 5) 히키코모리 대책추진사업(2009), 히키코모리 지역지원센터(2009)

2009년 후생노동성에서는 ‘히키코모리 대책추진사업(ひきこもり対策推進事業)’을 발표하고, 보건·의료·복지·교육·고용 분야의 관계기관과 연계하여 히키코모리를 ‘특화’한 전문적인 제1차 창구로서 ‘히키코모리 지역지원센터(ひきこもり地域支援センター)’를 전국에 설치했다. 이때부터 지원시설을 통한 상담서비스뿐만 아니라 내방이 어려운 당사자나 가족을 위해 가정방문을 중심으로 한 아웃리치 지원이 시작되었다. 2019년 현재 전국 67개 지자체에 총 75개의 센터가 설치되어 있다(厚生労働省, 2019).

### 6) 아동·청년육성지원추진법(2010)

2010년에는 ‘아동·청년육성지원추진법(子ども・若者育成支援推進法)’을 시행, 청소년

및 청년의 자립을 위해 포괄적 지원시스템 확립을 목표로 하였다. 이 법의 대상은 0세~30세로 정하고 있다. 2011년에는 내각부에서 ‘히키코모리 지원자 독본(ひきこもり支援者読本)’을 간행하여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지원론을 중심으로 고령화, 장기화되고 있는 히키코모리를 위한 지원내용을 담았다.

### 7) 히키코모리 서포터 양성연수 파견사업(2013)

2013년부터는 ‘히키코모리 서포터 양성연수 파견사업(ひきこもりサポーター養成研修・派遣事業)’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지역에 잠재되어 있는 히키코모리를 조기 발견하고, 당사자 및 가족에게 세심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속적인 방문 지원 등의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도도부현(都道府県)과 시정촌(市町村)에서는 히키코모리 서포터 양성교육을 담당하고, 시정촌(市町村)에서는 당사자 및 가족에게 서포터를 파견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 밖에도 정신보건복지센터, 보건소, 아동상담소 등에서 의사, 보건사, 정신보건복지사 등이 당사자와 가족에게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 8) 생활곤궁자자립지원제도(2015)

2015년에는 ‘생활곤궁자자립지원제도(生活困窮者自立支援制度)’가 제정되었다. 이 제도는 생활보호 수급상태에 이르기 전 단계에 있는 생활곤궁자에 대해 자립을 위한 상담지원과 거주지원, 취업지원, 가계지원 등 생활 전반에 걸친 포괄적 지원을 수행한다. 이 제도에서는 히키코모리 상태이면서 이미 생활곤궁상태에 놓인 사람은 물론 지금 당장 생활곤궁상태에 처하지는 않았지만 장래에 생활곤궁상태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은 사례도 포함하고 있다. 대상자에 대해서는 자립상담 지원기관에서 취업상담과 자립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연계함으로써 제도의 사각지대로 방치되는 일을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 9) 취업 빙하기 세대 활약 플랜(2019)

일본에서는 35세~44세를 ‘취업 빙하기 세대’라고 부른다<sup>6)</sup>. 이들이 사회에 나온 1990년

6) ‘취업 빙하기 세대’란 1993년~2004년에 학교를 졸업한 세대로 2019년 4월 현재 대졸의 경우 37세~48세, 고졸의 경우

대 후반에서 2000년대 중반은 버블경제가 붕괴하면서 기업들이 채용인원을 급격하게 줄인 시기였다. 이후 고용상황이 나아졌음에도 취업 시기를 놓치면서 이들은 원하는 일자리를 찾지 못했다(중앙일보, 2019.06.04). 이에 2019년 6월 일본 정부는 ‘취업 빙하기 세대 활약 플랜(厚生労働省就職氷河期世代活躍支援プラン)’을 발표했다. 30대 중반부터 40대 중반을 주 대상으로 이들의 취업·정규직 실현, 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사회보험 적용확대, 다양한 사회참가 실현을 목표로 지원하고 있다.

### 10) 일본 정부의 전국 규모 히키코모리 실태조사(2010, 2015, 2018)

일본 정부는 히키코모리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며 전국 규모의 히키코모리 실태조사를 지금까지 총 세 차례 실시했다. 2010년 내각부는 전국 규모로는 처음으로 ‘청년층의 의식에 관한 조사: 히키코모리 실태조사(若者の意識に関する調査:ひきこもりに関する実態調査)’를 실시했다. 이 조사를 통해 일본의 히키코모리 인구수가 69만 6천 명(출현율 1.79%) 정도로 추산되었고, 35세~39세가 23.7%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또한 히키코모리 잠재군도 155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조사는 2015년 실시한 ‘청년층의 생활에 관한 조사(若者の生活に関する調査)’를 통해 이뤄졌다. 이 조사에서는 39세 이하의 히키코모리 인구수가 약 54만 1천 명으로 추산되어 2010년 조사보다 15만 명 정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내각부는 히키코모리에 대한 지원정책이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었다고 해석했으나 한편에서는 현재의 히키코모리 실태와는 동떨어진 조사결과라는 비판이 있었다. 이케가미 마사키(池上正樹, 2016)는 2010년에 이어 두 번째 실시하는 조사임에도 불구하고, 조사내용의 연속성을 간과하고 있다고 했다. 2010년 조사결과 35세~39세 연령층이 가장 많았음에도 40세 이상을 조사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아 히키코모리의 고령화를 반영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히키코모리 잠재군에 대한 파악도 이뤄지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세 번째 조사는 2018년 중년 인구(40세~64세) 5천 명을 대상으로 ‘생활상황에 관한 조사(生活状況に関する調査)’로 진행되었다. 조사결과, 중년의 히키코모리 인구수는 61만 3천 명으로 추산되었고, 이 중 76.6%가 남성이었다. 또한 취업 빙하기 세대인 40대가

---

33세~44세에 해당하는 세대를 의미한다.

38.3%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일자리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사회적 단절 기간에 있어서 5년 이상이 절반을 넘었고, 20년 이상인 경우도 20%에 달했다. 이러한 실태는 히키코모리의 고령화, 장기화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일본 사회에 다시 한번 환기시키는 결과였다.

〈Table 1〉 Changes in Public Support System for the Transition of Hikikomori in Japan<sup>7)</sup>

Year	Main Contents
1991	•A model project for measures against Hikikomori and non-attendance of children (*The term Hikikomori first appeared in administrative policies)
2003	•Guidelines for community mental health activities surround a Hikikomori group in one's teens and twenties
2005	•A youth self-reliant cram school (*end of 2009)
2006	•Community youth support station
2009	•Countermeasure Project for Hikikomori •Community support centers for Hikikomori
2010	•Act on the Promotion of Children and Youth Development •General Counseling Center for Children and Youth
2010	•Guide for Hikikomori's assessment and support
2010	•Report on the actual status of Hikikomori
2013	•Implementation of supporter training and the dispatching project for Hikikomori
2015	•Act on Supporting the Independence of the Poor

## 2. 민간영역의 히키코모리 지원운동

일본의 히키코모리 지원은 민간영역에서 선도해 왔다고 할 수 있다. 다음에서는 일본의 히키코모리 지원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데 공헌한 대표적인 민간단체 두 곳을 정리하였다.

### 1) NPO법인 KHJ 전국 히키코모리 가족연합회

NPO법인 KHJ 전국 히키코모리 가족연합회(이하 KHJ)는 히키코모리 관련 민간단체 중

7) 사토 류야(佐藤隆也, 2018)의 표를 바탕으로 작성하였다.

에서도 가장 빠르게 전국조직을 만든 곳이다. 1999년 히키코모리 자녀를 둔 오쿠야마 마사사(奥山雅久)가 대표발기인이 되어 히키코모리KHJ 부모모임을 사이타마현에서 발족시켰다. 다음 해에 전국 히키코모리 KHJ 부모모임으로 이행되었고, 2004년 NPO법인으로 등록, 2015년 11월에 지금의 명칭으로 변경하였다. KHJ는 강박신경증(K), 피해망상(H), 인격장애(J)의 머리글자를 딴 것으로 병리성을 강조한 목적은 히키코모리 당사자의 정신력이나 부모의 애정에 의해서는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을 부모들에게 이해시키고, 장애연금 수급대상으로서 국가에 인정받기 위해서다. 그러나 모임 안팎을 불문하고 히키코모리를 질환으로 취급하는 것에 대해 강한 저항과 반발로 2014년도 총회에서 일본에서 유일한 전국조직 가족모임(당사자단체)라는 의미로 '가족, 히키코모리, Japan'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KHJ에서는 히키코모리를 가족 및 본인이 사회적으로 고립되지 않도록 전국 가족모임과 연계하여 행정에 제안하면서 누구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사회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활동 내용은 ① 가족모임 지원활동(강연회, 연수회, 공간 제공 등) 및 2013년부터 동료집단 양성연수사업 실시, ② 히키코모리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이해와 지역연계 촉진 활동 및 2015년부터 전국대회 개최, ③ 기관지, 서적, 홈페이지 등을 통한 정보제공, ④ 히키코모리 실태에 관한 조사연구활동 (2013년부터 厚生労働省 위탁), ⑤ 히키코모리 대책에 대한 제언 활동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국가와 지자체에 히키코모리 지원방향 제언)이다(KHJ, 2019).

## 2) 전국 사회적 히키코모리 지원 연합회의

전국 사회적 히키코모리 지원 연합회의는 와카야마현 지원자(\*민간지원단체 대표 및 정신보건복지상담원 등)를 중심으로 2004년 결성되었다. 2006년 1월 와카야마에서 사회적 히키코모리 지원자 전국실천교류회를 시작으로 전국 각지에서 번갈아 가며 매년 열리고 있다. 최근에는 지원자, 가족, 당사자, 행정관계자, 연구자, 학생 등 히키코모리에 관심을 가진 다양한 사람들이 참가하고 있다. 이틀간 진행되는 교류회에서는 강연, 심포지엄, 테마별 실천교류회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4년부터는 히키코모리 지원에 중점을 두면서도 보다 광범위한 청년지원을 전개하고자 '청년지원전국공동연합회의'로 명칭을 바꾸고, 교류회도 '전국 청년히키코모리협동실천교류회'로 명칭을 변경했다. 이 단체에

서는 히키코모리 상태는 교육문제, 가족문제, 지역문제 등의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관계하고 있다는 점에서 종합적인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石川良子, 2016).

### 3. 지자체 사례를 통해 본 히키코모리 지원현황 : 고베시 사례

다음에서는 히키코모리의 지원과 관련하여 지자체 수준에서 이뤄지고 있는 현황을 살펴보고자 고베시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고베시의 히키코모리 지원체계와 과제에 초점을 두고, 고베시가 최근 발표한 ‘고베시 히키코모리 지원시책 제안서(神戸市におけるひきこもり支援施策提案書)’를 바탕으로 정리하였다(神戸市ひきこもり支援施策検討会, 2020).

#### 1) 고베시의 히키코모리 지원체계

고베시의 히키코모리 지원체계는 보건복지국, 아동가정국, 교육위원회의 소관 하에 세분화된다. 그 중에서도 히키코모리 지역지원센터 ‘라포-르’는 히키코모리 당사자 및 가족을 대상으로 한 직접적인 지원전달체계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라포-르’는 의료 및 복지 관련 기관과의 연계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보건복지국 소관 하에 관리·운영되고 있다. 일본 정부의 ‘히키코모리대책추진사업’에 기반한 전달체계로 2009년 설치된 ‘라포-르’는 상담과 연계사업, 서포터 양성사업을 주요사업으로 수행하고 있다. 상담사업의 경우, 당사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정신보건복지사 등의 전문가격을 가진 코디네이터에 의해 전화·메일·내방·방문상담으로 진행된다. 필요에 따라서는 의료·교육·노동·복지 등 관련 기관에 연계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당사자의 사회참가 촉진 및 히키코모리 지원의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2014년도부터 ‘히키코모리 서포터 양성 및 파견사업’도 전개하고 있다.

‘라포-르’의 2018년 상담실적 현황을 살펴보면, 총 749건(누적상담건수, 실인원 169명)의 상담이 진행되었다. 상담유형은 주로 내방상담(60%)과 전화상담(35%)이었으나 이용자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방문상담(3%)과 이메일 상담(2%)도 병행하고 있었다. ‘라포-르’에서는 첫 상담이 전화로 이루어질 경우, 가능한 한 내방하도록 안내한다. 대면상담을 통해 지속상담으로 이어지면서 가족의 고민과 어려움을 경청하고 히키코모리 당사자에 대한 접근

방법을 조언하여 상담의 효과성을 높이고자 하는 의도이다.

‘리포-르’를 찾는 대상은 주로 가족(74%)이었고, 본인(17%), 의료기관(2%), 지역생활지원센터(1%)에서도 상담의뢰가 있었다. 성별은 절반 이상이 남성(63%)이었고(여성 49명, 29%, 알 수 없음 14명, 8%), 연령대는 40대(28%)가 가장 많았는데 최근의 추이를 보면, 20~30대 비율은 줄어드는 반면, 40대와 50대 이상 비율은 증가하고 있다. 히키코모리로 지낸 기간은 5년 이상이 약 30%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를 통해 히키코모리의 고령화, 장기화 현상이 고베시에서도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된 상담내용은 본인과 본인 이외(가족 등)로 구분했을 때, 본인상담에서는 1순위: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 2순위: ‘취업하고 싶다’, 3순위: ‘진로상담’, 4순위: ‘우선은 내 얘기를 들어줬으면 좋겠다’, 5순위: ‘사람과의 관계에 익숙해지고 싶다’라는 내용이었다. 본인 이외(가족 등)의 경우에는 1순위: ‘당사자와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모르겠다’, 2순위: ‘일을 하지 않는다’, 3순위: ‘정보가 있었으면 좋겠다(의료기관, 지원기관)’, 4순위: ‘의료기관이나 상담기관에 연계하는 방법을 알고 싶다’, 5순위: ‘외출 기회를 주고 싶다’ 순으로 많았다. 본인과 가족 모두 ‘일자리’에 관한 상담내용이 2순위였다는 점에서 취업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즉 당사자의 경우 취업해서 자립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고민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가족 또한 당사자가 사회참가를 할 수 있도록 가족으로서 어떻게 도와야 할지 고민하고 있는 모습을 엿볼 수 있다.

이 밖에도 보건복지국 소관으로 운영되는 생활 지원창구, 보건센터, 지역포괄지원센터에서도 히키코모리 지원상담 및 취업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각 구에 설치되어 있는 ‘생활지원창구’에서는 생활곤궁자자립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취업체험 등 사회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히키코모리 기간이 긴 경우에는 곧바로 취업으로 연결되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취업체험의 시간을 갖는 것이다. 구 단위로 운영되는 ‘보건센터’에서도 정신보건상담원 및 정신과 촉탁의에 의한 당사자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아동가정국 소관의 ‘아동가정센터’에서는 등교거부 학생상담사업의 일환으로 히키코모리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교육상담지도실이나 청소년보호센터에서 등교거부 학생 및 가정을 대상으로 상담을 수행한다. 학교사회복지사, 심리전문가, 학교상담



사 등 전문인력이 배치되어 직접 상담을 진행하며 관계기관과 연계하여 다양한 지원 활동을 벌이고 있다.

각 구의 사회복지협의회에서는 지역복지네트워크사업을 펼치는 지역복지네트워크가 활동하고 있다. 구마다 2명씩 배치되어 기존 제도나 서비스에서는 문제해결이 어려운, 이른바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지역 전문기관과 협업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네트워크 만들기 활동을 벌인다. 히키코모리도 사업의 주된 대상인데 지역복지네트워크의 아웃리치 활동을 통해 이들을 발굴하고, 연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 밖에도 후생노동성 위탁사업으로 ‘지역 청년 서포트 스테이션’이 운영되고 있다.

## 2) 고베시의 히키코모리 지원체계에 대한 평가 및 보완점

### (1) 히키코모리를 위한 종합지원 거점 필요

앞서 살펴봤듯이 고베시에는 히키코모리 지원체계가 보건복지국, 아동복지국, 교육위원회를 중심으로 다양하게 자리하고 있다. 그러나 각각의 기관이 개별 대응하고 있다 보니 관련 기관 간의 정보공유나 연계가 원활하지 못하다. 때문에 히키코모리에 대한 일원적이고, 포괄적인 지원체계의 필요성이 나오고 있다. 이에 고베시는 2020년부터 ‘고베 히키코모리 지원실’을 새롭게 설치·운영할 계획을 세웠다. ‘지원실’은 고베시의 히키코모리 지원을 위한 종합거점으로의 기능을 갖게 된다. 또한 상담이나 연계와 같은 직접지원이라는 최전선의 기능도 수행한다. 이에 더해 거점기관인 만큼 국가 동향이나 다른 지역의 선진 사례를 파악하면서 시의 정책을 분석·평가하며 고베시만의 새로운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한 조사, 기획사업도 수행할 예정이다.

### (2) 히키코모리 활동전문가 양성

전달체계는 정책과 실천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이라 할 수 있다. 히키코모리 지원정책에 부합되는 실천 활동이 원활히 이뤄지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을 보유한 활동가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 상담, 연계, 조정, 기획 등의 역량을 가진 전문인력을 다수 확보하고, 이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특히 히키코모리의 특성상, 외부로부터의 지원 정보가 부족할 가능성이 많고, 설사 정보가 있다 하더라도 직접 도움

을 요청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결국 아웃리치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측면에서 아웃리치를 담당할 인력도 지속적으로 양성되어야 할 것이다.

### (3) 다양한 가족지원

히키코모리 지역지원센터 이용자 중 70% 이상이 가족이었다. 히키코모리 지원에 있어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지원은 매우 중요한 영역이다. 가족의 히키코모리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비롯하여 당사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정서 지지 및 기술적 조언이 준비되어야 할 것이다. 자조집단이나 집단상담 또한 타 영역에서도 이미 효과가 검증된 의미 있는 프로그램이 될 수 있다. 히키코모리 가족이 교류할 수 있는 장을 지원하는 것도 지원의 효과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 (4) 접근방식의 다양화

아웃리치 방식뿐만 아니라 디지털을 활용한 접근방식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젊은 세대에게는 상담이나 정보제공, 정보 발신에 있어 SNS 등 그들에게 친숙한 방법을 도입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

## IV. 결론을 대신하여 : 한국에의 시사점

현재 일본 사회는 장기간 경기침체와 청년실업으로 구직과 생존을 위한 과도한 스트레스 및 경쟁적 관계에 적응하지 못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히키코모리로 불리는 이들은 절망감에 빠져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채 자신을 방임하는 모습이다. 타자와의 접촉을 기피하고, 심지어 가족과의 관계마저 단절하면서 자신의 존재감을 상실하거나 특정한 순간에 자기조절능력을 잃고, 공격적 성향을 드러내어 자신뿐 아니라 타인을 파괴하기도 한다(김경호, 2011).

이러한 히키코모리 문제는 일본 사회만의 문제가 아니다. 히키코모리 배경에는 실업률이나 비정규직 고용 등 고용환경의 악화, 지역사회 변모에 따라 개인의 고립화, 가족관계

약화 등의 요인이 지적되고 있다. 이와 동일한 현상을 보이는 한국 사회에도 이미 적지 않은 수의 히키코모리가 잠재되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상황에서도 알 수 있듯이 히키코모리 문제는 그 배경이나 문제 수준에 있어서 이미 당사자와 가족이 해결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섰다. 그들이 겪는 상실감과 결핍감은 개인 문제로만 취급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 사회안전망 구축이 필요한 사회문제인 것이다. 또한 그들이 스스로 어려움을 극복해 낼 수 있도록 사회적 차원에서 '고통과 희망의 연대'가 요구된다(김경호, 2011).

한국은 아직 사회적 고립자를 위한 공적 지원체계는 거의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다. 이러한 가운데 두 군데의 민간지원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하나는 민간에서 운영 중인 유일한 지원단체로 2012년 사회적기업으로 설립된 'K2 인터내셔널 코리아(이하, K2 코리아)'다. K2 코리아는 사회적응이 어려운 청소년과 청년의 탈고립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공동생활 쉼어하우스와 견습 훈련소 '돈카페(Don Cafe)'를 운영하고 있다. 더불어 사회적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니트나 히키코모리 청년에 대한 공적 지원을 호소하는 활동도 벌이고 있다<sup>8)</sup>.

다른 하나는 2020년 1월에 발족된 '한국은둔형외톨이(은돌)부모협회'이다. K2 코리아에서 운영해 온 부모모임(열쇠방 사람들)이 협회 설립으로 이어졌다. 협회는 당면 목표로 지자체 조례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 근거를 담은 활동을 계획 중이다<sup>9)</sup>. 이처럼 민간영역에서는 당사자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이들의 주도로 조금씩 지원활동을 벌이기 시작했지만 사회 전반적으로 볼 때, 히키코모리 현상 자체에 대해서는 아직 본격적으로 공론화되지 못하고 있다.

반면 일본에서는 이미 수년 전부터 국가적 차원에서 히키코모리 실태를 파악하고, 지원 정책 개발과 서비스 개선을 통해 대처방안을 모색해 왔다. 그러나 현실은 히키코모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채 오히려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는 모습이다. '8050문제'와 같은 세계적으로도 특수한 형태의 가족 구성과 히키코모리의 고령화, 장기화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최근 일본 정부는 히키코모리 지원정책 대상을 '아

8) K2 인터내셔널 코리아 홈페이지에 소개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하였다. <https://k2-kr.com/> (검색일: 2020.05.31)

9) 2019년 9월 광주시 조례안에 '광주광역시 은둔형외톨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한 바 있다. 광주시 조례 안에는 5년마다 은둔형외톨이 지원 기본계획을 세우고, 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조사활동 실시 및 전문인력을 양성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경향신문, 2020.01.19.).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2001192101025](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2001192101025) (검색일: 2020.05.31)

동·청소년'이나'청년층'에 국한하지 않고, '중·고령층'으로 확대해 가고 있으며 분절된 방식에서 '포괄적' 방식의 지원시스템으로 바뀌 가는 중이다. 특히 상담·복지·의료·교육·고용 등 다 영역에서의 포괄적 지원시스템과 더불어 민관의 다양한 협력체계 구축을 도모하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경험은 한국 사회에 여러 시사점을 가져다준다. 고독사, 사회적 고립과 같은 현상이 이미 한국에 자리해 있고, 이와 밀접하게 맞물려 있는 히키코모리 문제의 심각성 또한 간과할 수 없음을 고려한다면 일본의 사례를 참고로 대응방안을 구축해 가야 할 것이다. 관련하여 히키코모리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기초적인 차원에서의 제안을 여섯 가지로 정리해보고자 한다.

첫째, 한국은 아직 히키코모리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다. 또한 그들이 겪는 어려움의 실태에 대한 기초통계자료나 연구자료도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히키코모리에 대한 국가적 차원에서의 기초자료 확보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히키코모리 특성상 실태 파악을 위해서는 전국 단위의 행정력이 동원되어야 하고, 그래야만 제대로 된 조사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가 관심을 가지고 실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이후에는 그들의 생활적 어려움이나 생활과제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다. 이러한 자료들이 기반이 되어 히키코모리 지원을 위한 제도나 서비스의 구체화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2019년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국가 차원의 실태조사와 복지서비스 지원을 규정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된 바 있지만 국회를 통과하지는 못했다(경향신문, 2019.07.19). 히키코모리 문제가 넓게는 사회적 고립 문제와도 연결된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했을 때 국가적 지원의 우선순위로 다뤄질 필요가 있다.

둘째, 지역 중심의 히키코모리 당사자 및 가족을 위한 원스톱 전달체계가 필요하다. 그들이 도움을 요청할 곳으로의 기능도 수행하지만 고립한 상황일수록 타인과의 접촉을 기피한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발굴'인 아웃리치 기능이 매우 중요하다. 일본에서는 지역에서 당사자와 가족이 접근할 수 있는 제 1창구로서 '히키코모리 지역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상담, 아웃리치, 연계 활동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전달체계가 국내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사회적

고립가구 발굴 및 지원을 위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찾동)’라는 전달체계를 갖추어 동 단위로 다양한 전달체계와의 협력을 활용하고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2017년 3개동을 시범사업으로 점차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찾동 등과 같은 행정적 안전망과 함께 일상적인 주민 안전망을 통해 지역에서 지역 안의 사회적 고립에 처한 주민들을 원활하게 발굴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송인주, 2017).

셋째, 관계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도 중요하다. 한국에서도 지역 편차는 있으나 사례관리나 복지실천현장을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다. 사례관리의 주된 목적은 개인에 대한 맞춤형 포괄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다. 당사자를 중심으로 그를 둘러싼 환경체계를 활용하여 스스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 안에서의 네트워크가 원활하게 작동되어야 한다. 특히 히키코모리의 경우, 경제 빈곤, 정서적 지지, 취업 지원, 보건의료, 가족 돌봄 등 다 영역에 걸친 복합적 과제를 안고 있다. 일본에서도 최근 히키코모리 지원방향을 포괄적, 맞춤형 지원방식으로 전환해 가고 있는 상황이다. 단편적이고 분절된 형태의 지원방식으로는 가시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현재 일본은 상담·복지·의료·교육·고용 등 다 영역 간 네트워크를 갖추어 가는 모습이다. 따라서 히키코모리가 가진 복잡·다양한 과제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영역과 분야를 뛰어넘은 횡단적인 대응체계가 요구된다.

넷째, 히키코모리 지원에 있어서는 당사자 지원만큼이나 가족지원도 중요하다. 일본에서 발생한 고령의 부모가 히키코모리 자녀를 살해하는 극단적인 상황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가족의 부담감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히키코모리 가족들은 피로감과 마음의 상처, 미래에 대한 불안감 등을 강하게 느낀다. 우선은 부모가 안정하여 마음의 여유를 회복시킬 수 있도록 하는 부모지원이 필요하다. 가족이 안심하고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조 모임 공간 등 가족의 정서적 지지처로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는 곳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당사자 지원에 있어서도 정서적 지지처는 매우 유의미한 공간이 될 것이다. 바깥으로 나오는 계기를 마련하는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히키코모리 지원의 경우, 기간을 정하기보다는 당사자 속도에 맞춰 호흡을 길게 갖는 포괄적 지원체계가 필요하다. 장기간의 은둔 생활에 익숙해져 사회와의 관계 맺기가 쉽지 않을 것임

로 단계를 통해 사회에 나올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정리하면, 공간이라는 하드웨어 측면뿐 아니라 관계 맺기, 자기 돌아보기, 취업훈련, 취업체험 등 당사자들이 서서히 단계를 밟아 사회로 나갈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의 측면에서의 고려도 필요하다.

여섯째, 은둔 기간의 장기화가 또 다른 복병으로 등장한 일본의 상황에서도 알 수 있다 시피 히키코모리는 그 기간이 길어질수록 사회생활을 재개하기가 매우 어려워진다. 따라서 히키코모리의 장기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조기 발견과 초기대응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1. 논문 및 단행본

- 김건(2013). 히키코모리의 행태와 소통방식의 이해방안 : 〈흔들리는 도쿄〉와 〈김씨 표류기〉를 중심으로. **글로벌문화콘텐츠**, 12, 1-25. [Kim Geon (2013). Understanding of the Behavior and Communication Method of Social Withdrawal. *Global Cultural Contents*, 12, 1-25.]
- 김경호(2011). 결핍과 치유 : 관계성에 대한 성찰. **인문과학연구**, 28, 337-359. [Kim Kyunh-ho (2011). Lack and Cure: A Study on the Relationship. *Studies in Humanities*, 28, 337-359.]
- 김춘남 외(2018). **사회적 고립의 유형분석 및 지원방안**. 경기복지재단. [Kim Choon-nam et al. (2018). *Type Analysis and Support Plan of Social Isolation*. Gyeonggi Welfare Foundation.]
- 류웅재(2017). 위험한 불확실성의 시대, 쓰레기가 되는 삶들 : 벡과 바우만을 경유해 '지금 이곳'의 주체를 돌아보기. **한국언론학보**, 61(3), 257-282. [Ryoo Woong-jae (2017). An Era of Dangerous Uncertainty and Wasted Lives-Focused on Beck's Risk Society and Bauman's Liquid Modernity.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61(3), 257-282.]
- 백형태 외(2011). 부모 작성용 은둔형 외톨이 선별 도구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2, 262-270. [Beak Hyung-tae et al. (2011). Development of Parental Screening Questionnaire for Hidden Youth.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22, 262-270.]
- 사이토 다마키(2012). **은둔형 외톨이**, 김경란 역. 파워북. [Saito Tamaki (2012). *Hikikomori*, translated by Kim Kyoung-ran, Publisher Powerbook.]
- 서정아 외(2006). **학교밖 청소년의 실태와 정책적 대응방안**.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Seo Jeong-A et al. (2006). *Current Status of Out-of-School Youths and Policy Measures*,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 송인주(2017). **사회적 고립가구 발굴 및 지원방안 연구**. 서울시복지재단. [Song In-ju (2017). *A Study on the Finding and Supporting Social Isolated household*, Seoul Welfare Foundation.]
- 양미진 외(2007). 은둔형부적응청소년 사회성척도 개발연구. **아시아교육연구**, 8(2), 119-134. [Yang Mi-jin et al.(2007). The Development of the Korean Youth Social Withdrawal Scale. *Asian Journal of Education*, 8(2), 119-134.]
- 이규미 외(2001). 외톨이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3(1), 147-162. [Lee Kyu-mee et al.(2001). The Psychosocial Characteristics of Oiettolie Adolescents. *The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13(1), 147-162.]
- 한준(2019). **한국의 사회동향 2019 : 사회적 고립의 현황과 결과**. 통계개발원, 337-346. [Han Joon (2019). *Korean Social Trends in 2019: Current Status and Consequences of Social Isolation*, Statistical Research Institute, 337-346.]
- 황순길 외(2005). **은둔형 외톨이 등 사회부적응 청소년 지원방안**. 청소년위원회. [Hwang Soon-gil et al. (2005). *A Study on the Support Plan for the Adapted Youths in Social Unfit, including the Hermit-type Loner*, National Youth Commission.]

- 井出草平(2008). 社会学的問題としてのひきこもり:ひきこもりの社会学定義とひきこもりを社会学が取り扱う意義について. **年報人間科学**, **29**(2), 1-23. [Ide Sohei (2008). "Hikikomori" as Sociological Problem. *Annals of Human Sciences*, **29**(2), 1-23.]
- 石川良子(2016). ひきこもり支援の展開-地方への広がりに着目して-. **松山大学論集**, **28**(3), 75-95. [Ishikawa Ryoko (2016). Hikikomori sienno tenkai. *Matsuyama University Review*, **28**(3), 75-95.]
- 神戸市ひきこもり支援施策検討会(2020). **神戸市におけるひきこもり支援施策提言書**. 神戸市ひきこもり支援施策検討会. [Kobesi Hikikomori Siensisakukentouai (2020). *Kobesini okeru Hikikomori Siensisaku Teigensyo*. Kobesi Hikikomori Siensisaku Kentoukai.]
- 工藤宏司(2008). ゆれ動くひきこもり. Ogino Tatsushi et al. **ひきこもりへの社会的アプローチ:メディア・当事者・支援活動**. ミネルヴァ書房. [Kudo Kouji (2008). Yureugoku Hikikomori. In Ogino Tatsushi et al. *Hikikomorihenno Syakaigauteki Apuroti: Media, Touzisyu, Sienkatsudou*. Minerubasyobo.]
- 衣笠隆幸(2001). ひきこもりの症状形成と時代精神. **こころの臨床**, **20**(2), 211-215. [Kinugasa Takayuki (2001). Hikikomori no Syouzyoukeiseito Zidaiseisin. *Kokoronorinsyou*, **20**(2), 211-215.]
- 村澤和多里(2017). **ひきこもりについての理解と支援の新たなる枠組みをめぐって:心理社会的な観点からの探求**. 北海道大学 博士學位論文. [Murasawa Watari (2017). *Hikikomorinituiteno Rikaito Sienna Aratanaru Wakugumiwomegutte:Sinrisyakaitekina Sitenkarano Tankyu*. Ph.D. Dissertation, Hokkaido University.]
- 奥地圭子(2005). **不登校という生き方-教育の多様化と子どもの権利-**. 日本放送出版協会. [Okuchi Keiko (2005). *Hutoukoutoioi Iikikata: Kyouikuno Tayoukato Kodomono Kenri*. Japan Broadcast Publishing.]
- 齊藤環(1998). **社会的ひきこもり-終わらない思春期**. PHP研究所. [Saito Tamaki (1998). *Syakaiteki Hikikomori: Owaranaisisyunki*. PHP Kenkyusyo.]
- 境泉洋(2012). ひきこもり概念の形成史. 齋藤万比古 編著. **こころの医療と支援-ひきこもりに出会ったら**. 中外医学社. [Sakai Motohiro (2012). Hikikomori Gainenno Keiseisi. Saito Kazuhiko. *Kokorono Iryouto Sien: Hikikomorini Deattara*. Clinical Neuroscience, Annual Review.]
- 阪田憲二郎(2016). ひきこもり支援におけるソーシャルワーク機能に関する考察. **神戸学院総合リハビリテーション研究**, **11**(2), 89-100. [Sakata Kenhirou (2016). A Study on Social Work Functions in Supporting "Hikikomori". *Kobegakuin Journal of Rehabilitation Research*, **11**(2), 89-100.]
- 佐藤隆也(2018). ひきこもり支援の変遷と課題. **川崎医療福祉学会誌**, **28**(1), 27-36. [Sato Yuya (2018). The Transitions and Tasks of Supporting "Hikikomori". *Kawasaki Medical Welfare Journal*, **28**(1), 27-36.]
- 清水将之(2003). ひきこもりを考える. **精神医学**, **45**(3), 230-234. [Shimizu Masayuki (2003). Hikikomoriwo Kangaeru. *Clinical Psychiatry*, **45**(3), 230-234.]

## 2. 보도자료

- 경향신문(2019.07.19). 은둔형 외톨이 국내 첫 실태조사. [KyungHyang Shinmun (Jul. 19. 2019) The first survey on the actual condition of the reclusive loner in Korea.]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907190600015](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907190600015) (검색일: 2020.04.20. 10:30)
- 경향신문(2020.01.19). 한국은둔형외톨이부모협회 "집에만 있는 아이, 국가가 사회로 이끌어야". [KyungHyang



- Shinmun (Jan. 19, 2020) Hikikomori Parents' Association of Korea "A child who stays at home, the state must lead the society"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2001192101025](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2001192101025) (검색일: 2020.05.31. 17:00)
- 시사저널(2019.06.14). 왜 일본의 늙은 아버지는 아들을 죽여야 했을까. [Sisa Journal (Jun, 14, 2019) Why did an old Japanese father have to kill his son?]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186951> (검색일: 2020.04.21. 08:10)
- 중앙일보(2019.06.04). 중년 히키코모리에 놀란 일본, 취직 빙하기 세대 지원 나서. [JoongAng Ilbo (Jun, 04, 2019). Japan surprised by middle-aged Hikikomori, beginning of Employment ice age support.]  
<https://news.joins.com/article/23487964> (검색일: 2020.04.21. 08:20)
- 중앙일보(2020.02.07). 밀살: 방에서 15년째...한국 '히키코모리'는 나가고 싶다. [JoongAng Ilbo (Feb. 07, 2020). 15 years in the room ... Hikikomori in Korea wants to go out.]  
<https://news.joins.com/article/23700098> (검색일: 2020.04.21. 08:30)

### 3. 웹사이트 자료

#### ○ 한국

K2 인터내셔널 코리아 홈페이지. <https://k2-kr.com/> (검색일: 2020.05.31. 17:20)

#### ○ 일본

- 内閣府(2010). 若者の意識に関する調査(ひきこもりに関する実態調査). [Cabinet Office (2010). Survey on Attitudes of Young People (Survey on Detention).]  
[https://www8.cao.go.jp/youth/kenkyu/hikikomori/pdf\\_gaiyo\\_index.html](https://www8.cao.go.jp/youth/kenkyu/hikikomori/pdf_gaiyo_index.html) (검색일: 2020.05.31. 13:30)
- 内閣府(2016). 若者の生活に関する調査報告書. [Cabinet Office (2016). Survey Report on the Lives of Young People.]  
<https://www8.cao.go.jp/youth/kenkyu/hikikomori/h27/pdf-index.html> (검색일: 2020.05.31. 13:45)
- 内閣府(2019). 生活状況に関する調査(平成30年度). [Cabinet Office (2019). Survey of living conditions (2018).]  
<https://www8.cao.go.jp/youth/kenkyu/life/h30/pdf-index.html> (검색일: 2020.05.31. 14:00)
- 井出草平(2006). 井出草平の研究ノート. [Ide Sohei (2006). Ide Sohei's research note.]  
<https://ides.hatenablog.com/entry/20061011/1160578561> (검색일: 2020.04.23. 11:15)
- 池上正樹(2016). 内閣府「ひきこもり実態調査」, 40歳以上は無視の杜撰. DIAMOND Online. [Ikegami Masaki (2016). Cabinet Office's 「Survey on the Status of Hikikomori」, Ignoring 40 or older. DIAMOND Online.]  
<https://diamond.jp/articles/-/101238> (검색일: 2020.05.31. 18:00)
- KHJ(2019). 家族会が求める支援施策について, 第一回就職氷河期世代支援推進室プラットフォーム会議資料. [KHJ (2019). Support measures sought by family associations.]  
[https://www.cas.go.jp/jp/seisaku/shushoku\\_hyogaki\\_shien/suishin\\_platform/dai1/siryou4.pdf](https://www.cas.go.jp/jp/seisaku/shushoku_hyogaki_shien/suishin_platform/dai1/siryou4.pdf) (검색일:

2020. 04.20. 17:00)

厚生労働省(2007). ひきこもりの評価・支援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 [Ministry of Health, Labour and Welfare (2007). Guidelines for evaluation and support of retention.]  
<https://www.mhlw.go.jp/file/06-Seisakujouhou-12000000-Shakaiengokyoku-Shakai/0000147789.pdf> (검색일: 2020.04.02. 10:20)

厚生労働省(2010). 10代・20代を中心とした「ひきこもり」をめぐる地域精神保健活動のガイドライン-精神保健福祉センター・保健所・市町村でどのように対応するか援助するか-. [Ministry of Health, Labour and Welfare (2010). Guidelines for Community Mental Health Activities concerning “Hikikomori” among teenagers and twenties-How will the mental health and welfare centers, health centers and municipalities respond and provide assistance?.]  
<https://www.ncnp.go.jp/nimh/fukki/documents/guide.pdf> (검색일: 2020.04.02. 11:20)

厚生労働省(2019). ひきこもり地域支援センターの設置状況. [Ministry of Health, Labour and Welfare (2019). Establishment of Hikikomori’s community support centers.]  
<https://www.mhlw.go.jp/content/12000000/000515493.pdf> (검색일: 2020.04.02. 10:30)

厚生労働省 職業能力開発局 キャリア形成支援室(2010). 勤労青少年を取り巻く現状について. [Human Resources Development Bureau of Career Development Office Ministry of Health, Labour and Welfare (2010). Current Situation Surrounding Working Youths.]  
<https://www.mhlw.go.jp/stf/shingi/2t9852000010bg4-att/2t9852000010c1n.pdf> (검색일: 2020.05.31. 18:30)

## 박지선

일본 오카야마현립대학에서 보건복지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료비개호연구소와 서울시어르신상담센터를 거쳐 현재는 우송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외래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삶의 질, 사회문제, 가족복지, 돌봄노동이며, 주요 논문으로는 “영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육아참가가 자신의 심리적 복지에 미치는 영향”(한국생활과학회지, 2011), “영유아기 아버지의 부모역할인식, 양육긍정감, 양육참여의 관련성”(한국모자보건학회지, 2015), “조선족 우수청소년의 발달자원과 학교생활적응의 관계”(한국가족관계학회지, 2018), “노인의 분노조절 집단상담 프로그램 참여경험에 관한 질적연구”(사회적질연구, 2019) 등이 있다.

E-mail: lundy@daum.net

**Abstract**

## A Study on the Hikikomori Support System in Japan and Its Implication for Korea

Park, Ji-Sun

Lecturer, Dept. of Social Welfare, Woosong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Hikikomori support system in Japan and explore its implications for Korea. Japan experienced a rapid growth in the 1970s and an economic downturn in the 1990s, and in the aftermath of these two events, has a painful thorn called Hikikomori as a social problem now. They have problems such as the “8050 problem,” a problem, unique to Japan and related to the special forms of family composition, and aging and prolonging problems of Hikikomori. However, finding a solution to these problems seems a daunting task. Nevertheless, the Japanese government is making various efforts to figure out the status of Hikikomori at the national level and find ways to address their problems by developing support policies and improving services. Recently, it has changed the target and method of support. The Japanese government is expanding the scope of Hikikomori support policy, from the “children and youth” or “young people” to the “middle-aged and old people” and changing it from a divided method to a “comprehensive” support system. In addition, it is striving to establish a diverse cooperative system between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along with a comprehensive support system in various areas such as counseling, welfare, medical, education and employment. Based on this experience of Japan, I organized the implications for Korean society.

**Key Words:** Hikikomori, Social isolation, Reclusive loner, 8050 problem

